

[ 국제 ]

현장과 시각

광주시향과 김정원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여기 광주시향 연주 회장 맞아?”

지난 11일 광주시향 정기연주회가 열린 광주 문화회관을 찾은 기자는 깜짝 놀랐다. 공연 시작이 임박했는데도 매표소 앞은 표를 구하려는 이들이 넘쳐났고, 1천 800석은 이미 꽉 차 있었다. 결국 기자 일행 4명은 이날 계단에 앉아 공연을 관람해야 했다.

광주시향의 평균 관객은 700명 정도. 이중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관객은 150~200명 수준이다. 이날 전례 없는 상황은 피아니스트 김정원에서 비롯됐다. 수평평가를 위해 공연장을 찾은 청소년들도 있었지만, 김씨의 공연을 보려는 청소년과 성인 관객이 대부분이었다. 김씨의 협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향악단 사무실 전화는 불이 났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 주최측은 이날 6명의 안내 요원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김씨는 클래식 연주자로도 드물게 ‘오빠부대’를 모고 다닌다. 엄정숙 주연의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에 출연,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다.

김씨가 무대에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순간 아이돌 스타 공연장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몇몇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보였다. 김씨가 감성 분위기는 의외로 좋았다. 김씨는 이날 그리고의 ‘피아노를 연주’와 함께 앙코르 두곡을 선사했다.

광주는 수준높은 클래식 공연이 열리지 않는 대표적인 도시다. 전주, 하물며 순천에서 열리는 공연도 광주는 건너 뛴다. 조수미를 제외하고는 흥행을 장담할 수 없어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일반 기획사는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 광주시향의 공연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지역민들이 좋은 클래식 공연에 목말라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고, 그 갈증을 광주시향이 풀어줬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원이라는 ‘스타’에 열광한 것일 수도 있지만 클래식은 아직도 마니아 취향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많은 광주 시민이 클래식 공연장에서 하나가 됐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클래식 공연의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갖는 건 문제가 있다. 클래식이 의미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습으로 운영되는 광주시향의 역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연주 실력을 높이고 유럽 연주자와의 협연, 흥미로운 기획 공연, 클래식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클래식에 친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시향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완성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광주와의 인연’을 이유로 김씨가 개런티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행운은 자주 오지 않는다.

/mekim@kwangju.co.kr

남북 6자회담 실무협의

내일 판문점서...에너지 지원 등 논의

남북이 19일 판문점에서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갖는다고 외교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이번 접촉은 북한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7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봉쇄화에 맞춰 한·미·중·러 등 4개국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중유 95만 배럴의 에너지 지원문제가 집중 협의될 예정이다.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7월 수석대표회의 이후 북측에 실무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그동안 이에 응하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이 최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유보에 대한 반발로 핵시설 봉쇄화를 중단하고 이를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이상증이 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북측에서는 현화봉 외무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그동안 이에 응하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정일 삼남도 고혈압·당뇨 심각”

장남·차남과 함께 세 아들 모두 질환 시달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 아들이 모두 그동안 건강문제로는 거의 거론되지 않은 삼남 정운(24)씨도 아직 20대인데도 고혈압과 당뇨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인 장남(37)과 차남 정철(27)씨도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이중 정남씨의 심장질환은 할아버지인 고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부터 물려받은 유전형질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운씨의 고혈압과 당뇨는 특히 올해부터는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대북 소식통은 “정철과 달리 정지적 야심이 강한 정운은 2004년 어머니 고영희 사망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배반책 부인 감독의 강력한 견제를 받았었는데, 그때 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같이 술을 탐닉하다 급속히 건강이 악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을 오가는 게 외신에 많이 노출된 정남씨는 심장질환 치료차 유럽을 들락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졌다. 차남 정철은 ‘여성 호르몬 과다분비증’이라는 드문 병을 앓고 있는 데다, 농구를 하다가 부상한 다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진통제로 쓰는 바람에 중독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북소식통은 “정철은 통증 치료를 위해 마약성 마취제 프로메돌(모르핀) 대용으로 쓰이는 진통제)을 투약받은 적이 있는데, 그후 이 진통제에 애착을 보이며 친구들로부터 히로뽁 등 마약을 구매 상습 투여하는 바람에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 아들의 이러한 질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쓰러져 뇌관련 수술을 받았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밝힌 김정일 위원장은 고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물려받은 심장질환으로 지난해는 독일 의료진을 초청해 심장혈관관련 기술을 받았다.

김일성 주석은 오랫동안 심장질환을 앓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AP통신 “北 몇달 전 장거리미사일 로켓 엔진 시험”

북한은 새로 건설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지에서 몇 달 전 장거리미사일 로켓 엔진 시험을 했다고 AP통신이 미국의 한 관리를 인용, 17일 보도했다.

이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주 북한이 서해안에 기존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지를

사지보다 규모가 크고 기능이 향상된 새 기지를 건설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엔진시험을 한 미사일은 사정거리 2천500마일(4천250km)의 기존 대포동 2호로 새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포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저질분유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 최대 낙농회사가 제품을 리콜조치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질분유를 먹고 신장결석에 걸린 아이들이 우한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中 전역서 ‘저질 분유’ 생산·판매

샘플 조사 22개 업체 적발...피해 영아 급증

공업용 원료인 멜라민이 포함된 유아 사탕을 아기한 ‘저질 분유’가 중국 전국에서 생산,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질량검사국은 허베이성 스즈팡 소재 산루사의 저질 분유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109개 분유 업체의 491개 제품에 대한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업체 69개 브랜드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중국 수석대표들의 후계구도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쓰러져 뇌관련 수술을 받았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밝힌 김정일 위원장은 고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물려받은 심장질환으로 지난해는 독일 의료진을 초청해 심장혈관관련 기술을 받았다.

김일성 주석은 오랫동안 심장질환을 앓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광명 등 중국 주요 유제품 메이커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제품들을 매장에서 수거하도록 조치했다.

조사 결과 상하이와 산둥성 칭다오, 광둥·후난·헤이룽장성 등지에 소재한 업체들에서도 kg당 수십~수백mg의 멜라민이 검출돼 저질 분유가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루 분유를 먹고 16일차 영아 2명이 숨졌고 신장결석을 앓은 영아는 중대 53명을 포함해 1,253명으로 늘었다. 산루사의 경우 분유 15t이 이미 타이베이로 비롯

한 대만 10개 현으로 유통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루의 제품에서는 kg당 최대 2600mg의 멜라민이 검출됐다.

미사오웨이 중국 위생부 부장은 이와 관련, “산루 분유를 먹은 유아들만도 1만 명이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당국은 낙농업자와 우유 매상 등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 물을 섞은 우유에 멜라민을 첨가한 사실을 확인, 19명을 구속하고 산루 그룹에 생산 중단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또 허부 회대 3t의 저질 우유를 공급한 낙농업자 2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연합뉴스

태국 새 총리 솜차이 선출 63차 유엔 총회 개막

태국 의회는 17일 임시회를 열고 탁신 치나왓 전 총리의 매제인 솜차이 웅사왓(사진)교육부총리를 선출했다.

솜차이는 집권 정당연합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에 298표를 얻어 163표에 그친 유일 야당 민주주의의 아비짓 배차이와 총재가 겨루게 누르고 26대 총리로 선출됐다.

연립정부 중심당인 국민회의(PPP)의 부총재를 겸하고 있는 솜차이는 지난 9일 사막 순다라워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물러나자 총리대행을 맡아 과도정부를 이끌어왔다.

그는 탁신의 누이 동생인 아요와와 웅사왓의 남편이며, 딸인 친니차는 PPP 소

속 최연소 하원의원이다. 판사 출신인 솜차이는 1999~2006년에 법무 차관, 이후 노동 차관을 역임했으며 사막 총리 정부 하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한편 반(反) 탁신 사회단체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가 이끄는 시위대는 솜차이는 사막과 마찬가지로 탁신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총리로 선출될 경우 정부청사 점거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정국 긴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63차 유엔 총회가 16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니카라과 전 외무장관인 미구엘 데코토 브로크만 의장이 주재하는 이번 총회는 향후 1주일간 의장단 협의 및 운영위원회의를 거친 뒤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각각 수석대표들의 기조연설과 세션년개발목표 달성 상황 점검을 위한 고위급 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브로크만 의장은 올해 총회 주제를 ‘식량위기가 세계적 빈곤 및 기아에 미치는 영향 및 유엔의 민주화 필요성’으로 정하고 이를 토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woo Law Firm (대중법률(주)). Includes contact info (T.062)223-6600, 010-7668-6622 and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for areas like Yeosu, Gwangju, and Jeonju.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Oxion Korea).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010-3666-8446 and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for areas like Gwangju, Jeonju, and Seoul.